

조선후기 천주교 배교에 관한 재현적 글쓰기 연구

- 김훈의 <흑산>을 중심으로

윤인선*

【 차 례 】

- I. 들어가며
- II. 조선후기 천주교 배교 기록에 나타나는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작용
- III. 김훈의 <흑산>에 나타나는 배교에 대한 재현적 글쓰기
- IV. 마치며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후기 천주교 배교와 이후 삶에 관한 역사적 기록에 나타나는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작용과 이를 바탕으로 형상화되는 배교에 대한 재현적 글쓰기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샤를르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 속 배교에 관한 기록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천주교 종교 경험에서 나타나는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작용 양상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김훈의 <흑산>에 나타나는 정약전과 박차돌의 배교와 그 이후 다르게 서술되는 삶의 모습에 관해 살펴본다. 특히 신앙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영성과 개인적 영성의 차이와 배교 이후 공동체 속에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의 상호작용에 대해 논의한다. 이상의 논의는 조선후기 천주교 배교와 이후 삶을 행위의 결과를 통해 이해하는 시선에서 벗어나, 개인이 천주교를 믿고 신앙을 실천하는 양상과 이를 통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신자로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가능

*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배교를 단지 신앙을 버리는 행위로 바라보는 단편적인 이해를 넘어서, 박해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들의 다양한 종교 경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열쇠어 : 조선후기 천주교 박해, 종교 경험, 배교, 샤를르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
김훈의 〈흑산〉, 사회적 영성, 개인적 영성, 공동체의 인정, 자아-정체성

I. 들어가며

본고는 조선후기 천주교에 관한 종교 경험 중 배교의 형상화에 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조선후기 천주교 배교와 이후 삶에 관한 역사적 기록에서 나타나는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작용과 이를 바탕으로 형상화되는 배교에 대한 재현적 글쓰기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행위의 결과를 중심으로 믿음과 배교를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사회 공동체 속 종교 경험의 과정으로서 배교와 그 이후 삶의 모습 관해 생각해 볼 것이다.

조선후기 천주교는 1783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프랑스 선교사 그라몽 신부에게 세례를 받아온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천주교는 선교사들의 포교가 아닌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천주교 교리 서적을 동료들과 함께 연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후 천주교는 신자 공동체 속에서 교리에 대한 강학을 통한 개인적 변화뿐만 아니라, 명도회(明道會)나 인애회(仁愛會)와 같은 평신도 사도직 단체를 구성하여 조선 사회 속에서 새로운 삶과 문화를 확산해 나갔다.

당시 천주교 신자들은 “의리에 있어서는 상하의 구별도, 반상도 잘나고 못한 얼굴의 구별도 없고 다만 영혼만이 구별될 수 있고, 또 구별되어야 합니다.”와 “저희들이 제를 지내지 않는다는 건 사실입니다.(중략)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쓸데없는 노릇이라, 옳은 교에서 금하는 것

은 지당한 것입니다.”¹⁾)와 같은 심문 상황에 대한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 사회에서 쉽게 받아드려질 수 없는 평등사상과 제사 거부와 같은 새로운 삶의 실천과 문화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박해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조선 사회 속에서 천주교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박해를 피해 산속으로 들어가서 대안적 사회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들은 1790년대 후반 이래로 ‘교우촌(敎友村)’으로 불리는 신앙 취락을 형성하였다. 이곳에서 그들은 천주교 신앙을 매개로 재화의 나눔, 수평적 인간관계 그리고 개인적 순결과 같은 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며 상호 결속을 다지고, 두레 공동체적 풍습을 살려서 새로운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²⁾ 이러한 생활 공동체는 조선 정부의 박해를 피해 천주교 신자로서의 기존 사회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교우촌은 천주교를 탄압하려던 정부의 주요한 목표가 되었고, 많은 순교자를 낳았다.

그동안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들의 삶과 정부의 박해에 대한 논의는 주로 신앙의 여정에서 나타나는 순교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배교자에 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조선후기 천주교는 수용 당시부터 배교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³⁾ 박해 시기 당시 조선 정부 측 문서를 분석한 김한규와 고홍식의 연구에 따르면 신유박해(1801)와 병인박해(1866) 시기에는 각각 심문받은 전체 신자의 62%와 51%가 배교하였다고 한다.⁴⁾ 하지만 당시 배교자는 수적인 측면을 넘어서, 공동체를 통해 신앙을 유지하고 있던 다른 신자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였다.

1)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이경언의 옥중서한」, 『만남과 믿음의 길목에서』, 한국교회사연구소, 1989, 182쪽.

2) 조광, 『조선후기 천주교회사 연구의 기초』, 경인문화사, 2010, 13쪽.

3) 이효섭은 샤를르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에 나타나는 배교자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너희들이 어떤 책을 배우며 누구와 함께 배우는지를 말하여라. 엄한 금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감히 크게 방종한 사상을 따르며 더욱더 어리석은 것은 이론에 실천을 더하는 일이니, 그것은 큰 불충이다.⁵⁾

위 인용은 윤지충의 옥중수기 중 관군에게 심문당하는 장면의 일부이다. 천주교 신자들의 심문 기록을 살펴보면, “배주하고 당을 대라”라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개인의 배교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 대한 고발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시 배교는 개인의 신앙생활에 관

박해	배교자
을사추조적발사건(1785)	이벽, 이승훈
신해박해(1791년)	이승훈, 권일신, 최필공, 최인철, 정인혁, 손경운, 양덕운, 최인길, 최필재, 배관겸, 이존창, 박형화
을묘박해(1795)와 정조 말년의 박해(~1799)	홍낙민, 김종교, 정약용, 정약전, 한영익
신유박해(1801)	권철신, 조제동, 조용삼, 정형상, 정종형, 원경신, 조운형, 정종하, 박윤환, 심낙훈, 서경의, 김건순, 김백순, 문영인, 고광성, 이국승, 김종교, 유항검, 유관검, 김세귀, 김세봉, 변득중, 권상문, 이기정, 김여삼, 고성대, 홍재영, 김진후, 조숙, 장대원, 배마티아(배관겸의 동생)
을해박해(1815)	전지수, 이선복, 손두동, 김 아가다 · 막달레나, 김다테오(김강이의 동생)
정해박해(1827)	김성집, 김사여, 박보록, 유성태, 신태보, 안군심
기해박해(1839)	정국보, 이성례, 김제준, 최희득, 이시자, 정소사, 이소사, 홍봉주, 홍달주, 김절벽, 이사영, 허허임, 박춘화, 이득심, 김여상, 장성집, 최대중, 최병문, 이신규, 김장운, 박희순의 조카의 가족, 손경서와 그의 가족, 오종례의 형, 장사광 베드로의 두 아들
병오박해(1846)	임성룡, 이기원, 박성철, 임학이, 김재신, 김순이, 남경문, 엄수, 심대발발아, 허소발발아
병인박해(1866)	우세영, 황석두의 가족들

이효섭, 「병인박해 시기 천주교회 배교자와 회심자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6, 18쪽.

- 4) 김한규, 「<邪學懲義>를 통해서 본 初期 韓國天主敎會의 몇가지 問題」, 『교회사연구』 No.2,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82쪽.

고홍식, 「丙寅敎難期 信徒들의 信仰: 《捕盜廳臚錄》을 中心으로」, 『교회사연구』 No.6, 한국교회사연구소, 1988, 287쪽.

- 5)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앞의 책, 34쪽.

한 문제뿐만 아니라, 천주교 공동체 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이었다.

그동안 배교에 대한 서사와 연구는 이러한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은 간과하고 주로 호교론적인 입장과 개인의 신앙심 문제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물론 모두가 그들의 신앙을 증거 하지는 못하였다. 처음으로 입교한 사람들, 가장 유명한 복음 전파자들이 **그들의 비겁한 광경으로** 우리를 슬프게 하였다.

그가 당해야 하였던 신문의 상세한 점은 알 수 없으나, 불행해도 유감없이 아우구스티노는 **마음 약하게도 배교하였던 것 같다.**⁶⁾

샤를르 달레(Charles Dallet) 신부에 의해 저술된 <한국천주교회사>에서는 배교자에 대해 “그들의 비겁한 광경” 혹은 “마음 약하게”와 같은 표현으로 서술한다. 이를 통해 배교를 호교론적인 입장에서 잘못된 행위로, 더 나아가 배교의 원인을 개인의 깊이 못한 신앙심의 차원에서 설명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⁷⁾

6) 샤를르 달레 저, 안흥렬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상, 한국교회사연구소, 1978, 371, 527쪽.

7) 김수태는 아래 글을 통해 순교자 중심의 천주교회사 연구를 비판하고 배교문제를 통해 인간을 재발견하려는 노력을 강조하였다.

김수태, 「초기 한국 천주교회의 배교문제」, 『東洋學』 Vol.29, 단국대동양학연구소, 1999, 159~175쪽.

_____, 「이존창의 신앙과 배교문제」, 『한국천주교회의 역사와 문화』, 한국교회사연구소, 2011, 281~356쪽.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여전히 배교의 문제를 행위를 중심으로 호교론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로는 각주3)에 언급한 김한규, 고흥식의 글과 심상태의 아래 논문을 들 수 있다.

심상태, 「순교와 배교의 신학적 의미」, 『한국그리스도사상』 10,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002, 165~188쪽.

_____, 「이벽의 죽음과 순교문제에 대한 재조명」 『우리나라 천주교회 창립사』, 韓國

하지만 조선후기 배교의 원인은 개인의 신념이나 신앙에 대한 내적 갈등보다는 외부로부터 공동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고통과 고문, 더 나아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회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⁸⁾ 따라서 배교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믿고 실천하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신앙을 믿고 실천하는 개인’의 차원으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전제를 바탕으로 조선후기 천주교 배교와 이후 삶에 관한 재현적 글쓰기를 살펴볼 것이다. 재현적 글쓰기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역사적 기록에 대한 작가의 서사화 전략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메타-서사’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현적 글쓰기는 역사적 기록과 서사화 전략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배교 문제에 관해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신앙을 믿고 실천하는 개인’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먼저 역사적 기록으로서 샤를르 달레 신부가 저술한 <한국천주교회사> 속 배교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⁹⁾ 특히 조선후기 천주교 배교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서 나타나는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작용 양상이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기록에 나타나는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작용 양상을 바탕으로 배교 경험을 서사화하고 있는 김훈의 <흑산>을 살펴볼 것이다. 그동안 조선후기 천주교에 대해 재현하는 글들은 주로 순교자나 신앙을 포교했던 몇몇 인물을 중심 소재로 형성되었다. 하지만 김훈의 <흑산>은 순교자인 황사영뿐만 아니라, 박차들과 정약전을 비롯한 다양한 배교자들의 삶에 대한 서술이 나타난다. 특히 이

天主敎會創立史研究院, 2007, 130~171쪽.

8) 김한규, 앞의 글, 84쪽.

9) 샤를르 달레 신부가 저술한 <한국천주교회사>는 대부분의 조선후기 천주교에 대한 재현적 글쓰기에서 참고문헌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조선후기 천주교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메타 서사의 형성에 활용되는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가치 역시 지니고 있다.

들의 삶을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작용 양상에서 형상화한다. 따라서 천주교에 대한 다양한 재현적 글쓰기 중 본고에서 주목하는 배교와 이후 삶, 더 나아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II. 조선후기 천주교 배교 기록에 나타나는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작용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는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경험의 맥락에서 종교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이 성스러운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그것과 관련지어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한, 종교는 인간 개개인들이 고독 가운데 표현한 감정들, 행위들 그리고 경험들을 의미한다.¹⁰⁾

종교 경험은 인간 개개인이 ‘신(성스러운 것)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려는 개별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 경험은 반드시 개인과 궁극적이고 성스러운 실재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이 경험은 순교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부적 고난 속에서도 영혼의 안정감을 가지게 해주므로¹¹⁾ 내적 평화를 통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의 변화를 동반한다. 또한 이러한 삶의 변화 과정 속에서 개인은 종교 경험을 계기로 하여 분열된 인격을 통합시키면서 새로운 삶¹²⁾, 윤리적 도덕적 완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인격을 지닌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

10) 김재영, 「<종교경험의 다양성>속에 나타나 있는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이론」, 『범한철학』 제9집, 범한철학회, 1994, 153쪽 재인용.

11) William James,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A study in human nature*, Newyork: Modern Library, 1902, p.361.

12) 김성민, 『종교체험』, 동명사, 2001, 49쪽.

배교 그리고 배교 이후 삶에 대한 논의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신과의 관계성 단절을 통한 배교를 자기를 포기하기 못하고 갈등하는 개인이 맞이하는 실존적 위기 상황으로, 배교 이후 회심의 경험을 그러한 갈등 속에서 개인의 의지를 포기하고 신적 존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자기-통합의 상황으로 설명한다.¹³⁾ 이러한 맥락에서 배교와 이후 삶에 대한 서술 역시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 혹은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과 신의 상호작용’에 바탕을 둔 인간적 갈등과 이후 인격 완성에 대한 측면이 부각되었다.

열여덟, 스물, 스물한 살 때 나는 활력이 넘치고 무슨 일에도 열정적이었지만 때로는 분노와 초조함으로 가족들에게 감사할 줄 몰랐다.(중략) **당시 나는 자만에 빠져 하느님을 부정했고, 이기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¹⁴⁾

위 인용은 천주교 영성가 중 한명인 토머스 머튼(Thomas Merton)의 배교와 회심에 대한 기록의 일부이다. 그는 자신이 배교하게 되었던 원인을 “자만에 빠져” “이기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탐욕”과 같은 표현을 통해 서술한다. 즉 신과의 관계성이 단절되게 된 계기를 자신의 자만이나 이기심과 같은 내적인 문제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후 다시 신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회심하게 되는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내가 이 책에서 얻어낸 한 가지 **충격적인 개념**이 나의 전 생애에 혁명을 일으켰다.(중략) 나는 이 개념에 깊고 깊은 충격을 받아 책장 여백에 연필로 주를 달아 두었다. **‘하느님의 자존성’, 하느님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¹⁵⁾

13) 최재학, 「회심과 자기정체성 확립」, 『신학과 실천』 Vol.31, 한국실천신학회, 2012, 287~288쪽.

14) 토머스 머튼 저, 류해욱 역, 『토머스 머튼의 시간』, 바오로딸, 2010, 41쪽.

15) 토머스 머튼 저, 정진석 역, 『칠층산』, 성바오로출판사, 1982, 180~181쪽.

신과의 관계성 단절 이후 방탕한 삶을 살던 토머스 머튼은 우연히 하느님의 자존성 개념에 대한 책을 읽는다. 그리고 이 개념을 통해 머튼은 하느님이 인간 자신의 소망을 투사시켜 놓은 환상이 아니라 절대자이며 그 자체의 능력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깨닫는다.¹⁶⁾ 즉 그는 하느님의 개념을 자신의 삶 속에서 내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에서 회심을 결심한다. 분명 그의 회심 과정에서 가족과 같은 공동체에 대한 언급 역시 나타난다.

갑자기 죽은 지 일 년이 넘는 아버지가 홀연히 내 곁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어찌나 생생하게 실감이 났던지 아버지가 내 팔을 툭 치고 말을 거는 것 같아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나 **이 놀람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¹⁷⁾

토머스 머튼의 회심에는 가족 역시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이 놀람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지속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온전히 하느님의 것이 되려면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홀로 머물러야 한다. 적어도 내적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어야 한다.”¹⁸⁾라는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체보다는 내적인 고요함 속에서 신과 개인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배교와 배교 이후 삶은 ‘신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인격체로서 개인의 변화와 완성 과정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 사회 속에서 새로운 신앙과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전파되었던 조선후기 천주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 다시 말해, 새로운 문화와 삶의 양식을 사회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전파되었던 조선후기 천주교의 경우에는 개인과 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16) 김성민, 「토마스 머튼의 회심체험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 『신학과 실천』 Vol.43, 한국실천신학회, 2015, 306쪽.

17) 토마스 머튼 저, 정진석 역, 앞의 책, 21쪽

18) 토머스 머튼 저, 류해욱 역, 앞의 책, 140쪽.

신앙을 실천하는 개인과 그것을 받아드리는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샤를르 달레 신부가 작성한 <한국천주교회사>에 나타나는 조선후기 천주교 배교에는 고문이나 형벌, 가족의 반대, 국가나 주변 사람들의 회유, 문화적 갈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 존재하였다. 이러한 배교 과정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서술 양상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구성 요소를 찾아 볼 수 있다.¹⁹⁾ 바로 ‘신앙과의 만남-신앙적 삶의 자질-신앙으로 인한 고난 경험-배교 과정-배교/배교 이후의 삶’이다.²⁰⁾ 이상의 배교와 그 이후 삶에 대한 서사의 구성 요소를 기해박해 때 배교하고 이후 삶에서 회심 한 이성례의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겠다.

① 신앙과의 만남: 최 프란치스코의 아내 이성례 마리아는 홍주 고을에서 태어났는데, **1801년에 순교한 이루이, 곤자가의 집안 출신이었다.**

② 신앙적 삶의 자질: 산 속에서 그 어린 자식들이 배고픔과 피로에 기진맥진한 것을 본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때에는 모성의 고민을 억제하고 격려의 말을 찾아내어 이 세상 생명의 짧음과 후세 생명의 영원함을 환기시키며 우리 주 예스그리스도의 모범을 그들의 눈 앞에 보여주었다.**

③ 신앙으로 인한 고난 경험: 마리아는 **가혹한 고문을 당해야만 하였으니, 곤장을 3백 대 이상이나 맞은 것이다. 그러나 형장 앞에서 잠시도 굴하지 않고 다시 욕에 간헐했다.**

19) 역사 서술이 객관적 지식보다는 미적 또는 교육적 효과를 추구할 경우, 그것은 새로운 언어적 구성물을 창조해 낸다. 본고에서 인용하는 샤를르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를 비롯한 조선후기 천주교 역사 서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즉 조선후기 당시 천주교 신자들의 삶을 외부에 보고하고 향후 신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과정에서 서술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헤이든 화이트(Hyden White)가 분석한 19세기 유럽의 역사와 같이 몇몇 서술의 전형성이 나타날 수 있다.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5, 112~127쪽 참조.
20) 대부분의 배교와 회심과 같은 배교 이후 삶에 대한 서술에서 이상의 요소들은 구성 순서를 달리할지라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④ 배교 과정: 이때에 비로소 저희들끼리 아무 의지도 없이 남겨 두게 될 다섯 아이들을 가까이서 보고 **어머니의 마음이 몹시 뒤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을 부지하여 그들이 영혼을 잃은 위험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마음이 약해져 배교한다는 한 마디를 하게 되었다.

⑤ 배교 이후의 삶(회심): **모든 신자들이 그에게 죄를 기워잡으라고 권고 하므로** 그는 관군 앞에서 배교 취소를 하니, 관군은 기대가 어긋나고 화가 치밀어 이전보다 더 가혹하게 매질을 시켰다.²¹⁾

①에서 알 수 있듯이, 이성례는 교리에 대한 독학이나 신비체험이 아닌 순교자 집안이라는 신자 공동체의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②에서 “모성의 고민을 억제하고”와 같은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 사회에서 주어진 어머니라는 정체성과는 다른 천주교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처럼 이성례는 가족 공동체를 통한 신앙과의 만남과 “산 속” 교우촌의 삶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 천주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따라서 ③에 나타나듯이 조선 사회에서 천주교 신자로서 고난을 마주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④에 나타나는 이성례의 서사를 살펴보면 조선 사회 속 어머니와 동시에 천주교 신자라는 두가지 정체성에 대한 갈등과 고민 속에서 배교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즉 이성례가 배교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육체적 고문이 아닌 공동체 속에서 천주교 신자이면서 동시에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후 이성례는 ⑤에서와 같이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 속 신자들의 권고로 회심하여 배교를 철회하고 더 심한 고난을 맞이한다. 그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천주교 신자로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기존의 사회의 시선 속에서 어머

21) 샤를르 달레 저, 안홍렬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중,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434~435쪽.

니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갈등으로 인해 배교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의 권고를 통해 기존 사회와 천주교 신자로서의 간극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정리하고 회심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의 전개 과정은 ‘공동체의 조종을 통한 개인의 변화’와 ‘개인 행위에 대한 공동체의 인정’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그레마스(A. J. Greimas)의 논의를 활용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조종(인지적)	능력(화용적)	수행(화용적)	인정(인지적)
① 신앙과의 만남	② 신앙적 삶의 자질	③ 신앙으로 인한 고난 경험	④ 배교 과정 ⑤ 배교 이후의 삶 (회심)
신앙 형성 과정		박해 과정	
공동체의 ‘조종’을 통한 개인의 변화		개인 행위에 대한 공동체의 ‘인정’	

신앙 형성 과정에서 이성례는 공동체의 ‘조종’을 통한 개인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지적 차원에서 가족 공동체를 통해 천주교 신자로서 기존 사회와는 다른 자기-정체성을 받아드리고, 화용적 차원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후 이성례는 천주교 박해 과정에서 공동체의 조종을 통해 형성된 신앙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수행(화용적)’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다시 공동체의 ‘인정(인지적)’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미드(G. H. Mead)에 따르면 “사회적 자기-정체성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된다. 자기-정체성은 타인(공동체)의 인정을 받아야만 우리가 부여받고 싶어 하는 가치를 얻게 된다.”²²⁾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을 하나의 특수한 인격체로 인정

22) 악셀 호네트 저, 문성훈·이현재 역, 『인정투쟁-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사월의책, 2011, 173쪽.

할 때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된다.²³⁾ 다시 말해, 개인의 행위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인정받을 때, 행위의 정당성 더 나아가 행위를 수행하는 개인의 자기-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성례의 배교와 배교 이후의 삶(회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성례는 조선 사회의 관군에게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심문받고 부정당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배교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에게 조선 사회 속 어머니가 아닌 천주교 신자로서의 새로운 자기-정체성을 인정받는 과정을 통해 회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성례는 신앙 공동체의 ‘인정’ 과정에서 형성된 천주교 신자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통해 “이전보다 더 가혹한 매질”을 감내해 낼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자기-정체성을 인정받는 과정은 윌리엄 제임스가 논의한 종교 경험을 통한 자기-완성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완성은 개인과 신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배교와 이후 삶에 대한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앙에 대한 공동체 속 개인의 인정투쟁 과정’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조선후기 천주교에 있어서 배교와 배교 이후의 삶이 개인 행위에 대한 공동체의 ‘인정’을 추구하는 맥락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다른 사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치훈이라는 이승훈의 아우는 천주교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맹렬한 증오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는 자기 형을 낙심시키고 뜻을 바꾸게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 썼다. 날마다 되풀이되는 **집안 박해로** 견딜 수 없게 된 이승훈은 마침내 넘어가고 말았다. **그는 그의 종교 서적을 불태우고 자기가 천주교인이었음을 일반 앞에 변명하는 글을 썼다.**²⁴⁾

위 인용은 이승훈 베드로의 배교에 관한 서술이다. 앞서 살펴본 이성

23) 위의 책, 160쪽.

24) 샤를르 달레 저, 안홍렬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상, 한국교회사연구소, 1978, 319~320쪽.

례의 서사가 회심으로 이어졌다면, 이승훈의 것은 배교로 행위가 마무리된다. 천주교를 믿었던 이승훈은 “종교 서적을 불태우고 자기가 천주교인이었음을 일반 앞에 변명하는 글”을 쓰면서 조선후기 사회 속에서 배교를 증명한다. 이는 이승훈이 천주교 신자로서 자신을 ‘조종’해준 신앙 공동체가 아닌 조선 사회 속 가족 공동체에서 개인 행위의 ‘인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가족 공동체 속 행위의 인정을 통해 이승훈은 천주교 신자가 아닌 조선 사회 속 이씨 집안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

이처럼 조선후기 배교와 이후 삶은 개인의 신앙적 허약함이나 고문과 같은 국가의 폭력성뿐만 아니라, 신앙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의 ‘조종’을 통한 개인의 변화와 박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 행위에 대한 공동체 ‘인정’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III. 김훈의 <흑산>에 나타나는 배교자의 삶에 대한 재현적 글쓰기

그동안 천주교 배교에 대한 역사 소설을 비롯한 사실성에 바탕을 둔 재현적 글쓰기들은 인간적 연약함이나 신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종교적 인간상에 초점을 두었다. 본고에서는 앞선 2장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배교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의 조종을 통한 개인의 변화’와 ‘개인의 행위에 대한 공동체 인정’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배교와 그 이후 삶이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천주교 관련 서사에서 주목받지 않았던 배교 문제를 다룬 김훈의 <흑산>²⁵⁾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²⁶⁾

25) 그동안 김훈의 <흑산>에 대한 연구는 언어와 이념의 글쓰기, 역사적 인물의 재현, 바다와 같은 표현의 문제를 중심 전개되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배교’ 문제에 집중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동안 김훈의 <흑산>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아래와 같다.

김훈의 <흑산>에는 순교자 황사영을 중심으로 박차돌과 정약전이라는 두 명의 배교자를 중심으로 서사가 구성된다. 이들은 모두 신유박해 당시 고문을 받고 배교한다.

그들은 사학죄인이었다.(중략) 내 형제들은 **천주학을 한바탕 신기한 이야기거리로 알았을뿐**, 그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고 타인을 교화시키지도 못했다.(중략) 헤아릴 수 없었지만 약종의 그 진술 덕에 **약전과 약용은 유배로 감형되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²⁷⁾

우포도대장 이판수는 비장 박차돌을 곤장 열대를 치고 형틀에서 풀었다. **매질을 멈추라는 형리들은 어리둥절했다.** 이판수는 관원들을 물리치고 박차돌을 내실로 불러들였다.(중략) - 너는 관복을 입은 후에도 서캐처럼 천한 근본을 버리지 못하고 샛된 무리들과 엉켰다. 관부가 그리도 시쁘더냐? - **몇**

김주연, 「김훈 소설에서 바다의 의미 - 『흑산』을 중심으로」, 『문학과 종교』 제18권 2호, 한국문학과 종교학회, 2013.

_____, 「정약전 삶의 소설 형상화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5.

이근세, 「이념의 문제와 글쓰기 전략 - 김훈의 『흑산』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No.49, 우리어문학회, 2014.

박진아, 「끝없는 불화, 송고한 언어: 김훈, 『흑산』, 『이화어문논집』 Vol.31, 이화어문학회, 2013.

- 26) 공임순에 따르면 역사에 대한 재현적 글쓰기는 경험 서사와 허구 서사가 융합되는 과정에서 사실성에 입각한 작가의 상상력이 혹은 과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하는 사실성이 우선시되기도 한다. 이때 김훈의 <흑산>의 경우에는 신유박해라는 배경과 정약전과 흑산도 주민, 황사영과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참고문헌을 활용한 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박차돌, 마노리와 같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민초들의 삶이 서술된다. 이를 통해 김훈은 천주교 박해를 배경으로 순교자나 천주교 지도층과 같은 특정한 위인이 아닌 당시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평범한 인물들의 삶에 대해 사실성에 입각한 역사적 변용을 통한 재현적 글쓰기를 보여준다.

공임순, 「역사소설의 개념과 장르적 유형론」, 『역사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2003, 10쪽.

김윤정, 「김훈의 역사소설에 나타난 역사 변용의 원리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5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7, 197쪽.

- 27) 김훈, 『흑산』, 학고재, 2011, 13~16쪽.(이하 김훈의 <흑산>을 인용할 경우에는 쪽수만 표기)

번 얼씬거렸을 뿐, 깊이 몰들지는 않았습다.(71~72쪽)

김훈의 <흑산>에 나타나는 정약전과 박차돌은 천주교를 믿었던 ‘사학 죄인’으로 체포되어 고문을 받는다. 그리고 이들은 “신기한 이야깃거리”로 알거나 “몇 번 얼씬거렸을 뿐”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앙으로서의 천주교를 부정하고 죽음을 면하게 된다. 김훈의 <흑산>에 나타나는 정약전과 박차돌은 모두 배교를 통해 삶을 얻는다. 하지만 배교 이후 이들의 삶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배교 이후 삶에 대한 차이는 신과 개인의 관계를 넘어서 천주교 신앙의 형성과 공동체의 인정에 대한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개인적 영성과 배교 이후 삶의 형상화

김진호의 논의에 따르면 종교 경험을 통해 형성할 수 있는 영성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은사적 서사’와 ‘영적 서사’로 구분한다. 이때 ‘은사적 서사’는 종교 경험을 통해 은사를 받은 이가 자신이 신에게 선택되어 개인적인 아픔을 치유 받았으며, 이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권위자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²⁸⁾ 이는 신앙 형성에 있어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힐링과 같은 자기-치유를 통한 ‘개인적 영성’이 강조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박차돌이 천주교 신자가 되는 과정은 이러한 개인적 영성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박차돌은 숯쟁이의 공초를 기록하면서, 사람들끼리 가두고 때리지 않는 세상을 숯쟁이가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형틀에 묶인 숯쟁이에게 말을 걸 수는 없었고 옥으로 찾아가서 물어보기에는 이목이 두려웠다. 박차

28) 김진호, 「사회적 영성 시론」, 『사회적 영성-세월호 이후에도 ‘삶’은 가능한가』, 현암사, 2014, 28쪽.

들은 세상이 무서울수록 그 세상에서 벗어나려는 저 자신의 마음이 무서웠다.(78~79쪽)

소작농의 아들인 박차들은 가족과 고향에서 먹고 살 것이 없어지자 생계를 위해 강원도에서 화전 생활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이 주는 현실적 어려움을 혐오한 그는 이후에는 공명첩을 사서 포도청의 관원이 되고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심문을 기록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박차들은 자신이 처한 험난한 현실과는 다른 “사람들끼리 가두고 때리지 않는 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고, “가는 비에 옷이 젖듯이”(157쪽) 천주교 신앙에 물들어 간다. 즉 박차들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관원이 되는 것과 같이 개인적 영달을 추구하며 현실의 어려움을 타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천주교 신앙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그에게 천주교는 신앙에 바탕을 둔 공동체적 삶이나 새로운 문화의 실천이 아닌,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서는 자기-치유의 또 다른 가능성으로 다가왔다.

안쪽 벽에 나무로 엮은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그 옆에 여인을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다.(중략) **박차들의 눈에는 여인이 이 세상이 아닌 곳으로 가려는 것 같았는데, 거시는 그 단순하고 분명한 말들의 동네일 듯도 했고, 죽은 숯쟁이의 혼백도 가 있을 것 같았다.**(중략) 박차들은 강사녀의 창고에 몇 번 가서 교리 설명을 들었지만, **교인들과 사사로이 왕래하지는 않았다.**(158~159쪽)

위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박차들에게 천주교 신앙은 ‘지금 여기에서 삶을 꾸려가는 공동체’가 아닌, “이 세상이 아닌 곳”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을 꿈꿨다. 하지만 그는 관원 생활을 통해 현실에서 천주교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숯쟁이는 배교했지만 배교의 대가로 살아서 옥문을 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공초를 기록하면서 박차들은 예감했다.”(79쪽)와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천주교를 믿는 것은 스

스로 현실의 어려움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교인들과 사사로이 왕래하지 않으며” 신앙 공동체를 벗어나, 기존의 조선 사회 속에서 자기-치유를 위한 개인적 영성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민한다. 이처럼 박차돌이 추구한 개인적 영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신앙 공동체 속 삶은 무의미한 것이었다. 이러한 박차돌에게 천주교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신앙 공동체에게 인정받는 경험을 전무했다. 따라서 배교 이후의 삶에서 박차돌은 박해를 피할 수 있는 현실 속 삶을 추구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공동체의 ‘인정’을 추구한다.

박차돌은 이름처럼 이마와 정수리가 단단해 보였다. 이판수가 말했다. -
차돌아, 살길이 있는데, 죽는 길로 가지 말거라.

이판수는 종사관이 공명첩을 산 돈의 출처를 말했을 때 박차돌은 이 세상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깨달았다. 깨달았다기보다는 오래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163쪽)

박차돌은 포도청의 염탐꾼 노릇을 시작하면서 조개젓 행상으로 위장했다.(중략) 박차돌은 포도청에서 나올 때 증거물로 압수된 언문 교리서를 베껴왔다. 박차돌은 교리를 익히고 경문과 계명을 외었다.(218~219쪽)

개인적 영성을 통해 신앙을 만난 박차돌은 현실 사회 속에서 박해를 피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인정을 추구한다. 그래서 박차돌은 “염탐꾼”으로서 “살길”을 선택한다. 배교 이후의 삶에서 박차돌은 “염탐꾼 노릇”하여 관군 공동체의 인정을 추구하며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인 조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형성해 나간다. 하지만 이러한 박차돌의 정체성 형성 과정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한다.

박차돌은 누이동생 박한녀가 천주교인의 구역장이며 연락책으로 홍성관

아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서울 동소문 밖에서 푸줏간을 하는 교인에게서 들었다.(중략) 박한녀의 가족 관계나 주변 연고선에 대한 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차들의 이름은 아직 발설되지 않고 있었다.(중략) 박차들은 서둘렀다. 박한녀에 대한 포도청의 형문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손을 써놓아야 했다.(중략) 박차들은 누이동생 박한녀의 시체를 구덩이 밑에 내려놓았다. 염도 없고 관도 없었다.(중략) 묻기를 마치고 **박차들은 그 자리에 쓰러져서 해가 뜰 때까지 울었다.**(228~240쪽)

조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하던 박차들은 천주교 신자였던 누이동생이 관군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리고 그는 누이동생에 대한 연민과 함께 자신의 배교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²⁹⁾ 속에서 갈등에 빠진다. 즉 누이를 만나 구해주어야 한다는 혹은 제대로 신신이라도 수습해야 한다는 마음과 함께, 그렇게 될 경우 잘못하면 관군에게 적발되어 배교 이후 다시 조선 사회 속에서 인정받아가던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상황 사이에서 갈등에 빠지게 된다.³⁰⁾

그날 밤 박차들은 잠적했다. 아침에 박차들은 포도청에 나타나지 않았다. 종사관은 다른 사령을 불러서 아리를 매질했다. 점심때까지 박차들이 나타나지 않자 포도대장 이판수는 박차들의 집으로 사람을 보냈다. **어디서 구했는지 돈 삼십 냇을 처에게 주고, 밤중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챙겨서 나갔다는 보고가 돌아왔다.**(360쪽)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누이의 죽음을 맞이한 박차들은 잠적한다. 박차들이 추구하던 개인적 영성은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동체 속 가치의 공유가 부재한 것이었다. 그는 같은 천주교 신자들과의 상호작용 역시

29) “너는 본래 사학죄인이다. 너의 개심이 온전한 것인지, 어른께서 미심쩍어하신다는 말이니 나 또한 그러하다.”(223쪽)

30) 이러한 갈등 상황은 2장에서 살펴본 이성례의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를 넘어서 개인적 영성을 추구하던 박차들의 경우에는 이성례와는 다르게 배교 이후 회심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부재하였다.

어려웠다.³¹⁾ 따라서 박차들은 신앙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천주교 신자로서의 정체성 역시 형성하지 못한다. 박차들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정을 추구하고 자기-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던 공동체는 관군과 함께 하는 조선 사회뿐이었다. 그러나 끝내 박차들은 조선 사회의 인정을 통한 자기-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박차들은 잠적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분열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처럼 개인적 영성을 추구하던 박차들은 배교 이후 신앙 공동체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기-정체성 형성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실존적 불안과 자아의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2. 사회적 영성과 배교 이후 삶의 형상화

김훈의 <흑산>에 등장하는 또 다른 배교자인 정약전은 앞서 살펴본 박차들과 다른 모습으로 서술된다. 배교 이후 박차들이 개인 행위에 대한 공동체의 인정을 추구하지 못하고 자기-정체성 형성에 실패했다면, 정약전은 유배지인 흑산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나타난다.

본장의 1절에서 김진호의 논의를 바탕으로 살펴본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은사적 서사가 개인적 영성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영적 서사’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영적 서사는 신에게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타인을 배려하고 그이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³²⁾ 이러한 은사적 서사를 ‘사회적 영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영성이란 한 개인의 경험을 신앙 안에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삶과 사회의 질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적 변화와 행동 과정을 그가 속한 공동체의 맥락 안에서 설명한다. 따라서 사회적 영성은 영성의 공동체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³³⁾

31) “강사녀가 보기에 박차들은 신심이 짙지는 않았다. 다만,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어디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임은 분명했다.”(213쪽)

32) 김진호, 앞의 책, 28쪽.

정약전이 천주교 신자가 되는 과정은 이러한 사회적 영성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봄에 죽은 정약종과 가을에 살아남은 정약용은 똑같이 단호했다. **둘은 정약전에게 천주 교리를 배워서 이 세상 너머를 엿보았다.**(140쪽)

사실 정약종에게 천주교를 가르쳐준 것은 정약전 자신이었다.(중략) 정약전은 그 책에서 읽은 교리에 자신의 생각을 보태서 **동생 정약종 앞에 펼쳐보았고**, 정약종이 스스로 그 안으로 몸과 영혼을 던진 것이었다. **하늘의 선한 뜻은 권력의 작용이 아니라 인간의 실천을 통해 일상의 땅 위에 실현할 수 있으며, 그 실천의 방법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네 이웃을 사랑하고 죄를 뉘우치고 뉘우침의 진정 위에 새날을 맞이하라. 크고 두려운 날들이 다가온다.**(200쪽)

정약전은 박차돌과 다르게 천주교 신앙을 혼자 마주하지 않는다. “동생 정약종 앞에 펼쳐보았고”나 “둘은 정약전에게 천주교를 배워서”와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를 통해 천주교를 만나고 믿음을 형성해 나간다. 이때 정약전에 추구하던 천주교 신앙은 “이 세상 너머를 엿보았다”는 표현에서와 같이 박차돌과 마찬가지로 현실적 고통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약전에게 천주교 신앙은 자기-치유와 같은 개인적 영성이 아니었다. ‘하늘의 선한 뜻’은 ‘인간의 사랑 실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위해 ‘네 이웃을 사랑하고 죄를 뉘우치며 새날을 맞이하라’는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인의 신앙적 변화와 행동을 그가 속한 공동체의 맥락 안에서 생각하며 은사로 말미암아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적 영성의 모습을 보인다.

33) 박정은, 「사회적 영성의 정의와 방법론」, 『사회적 영성-세월호 이후에도 ‘삶’은 가능한가』, 현암사, 2014, 180~181쪽.

아직 벼슬이 붙어 있을 때 정약전은 구례 강마을 백성들이 관아에 올린 글을 읽은 것이 있었다. 늙은 당산관이 그 글을 정약전에게 보여주었다. 문장이 아니라 통곡이었는데, 문장이 아니면 또 어떠랴 싶었다.(중략) **땀에 처박힌 거지 아이의 시체를 보면서 정약전은 구례 강마을 백성의 글을 떠올렸지만,**(중략) 그 주검을 바라보는 **약전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 속 신은 강림해 있는 듯도 했다.**(29쪽)

정약전은 현실 공동체의 부조리로 인해 죽어가는 거지 아이의 시체를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 속 신은 강림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즉 비참하게 죽어가는 타인의 모습 속에서 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약전은 박해와 심문 과정에서 자신의 치유와 삶에 대한 ‘은사적 서사’가 아닌 사도 바오로가 말한 공동체 속 타인의 안녕을 지향하고 배려하는 ‘영적 서사’의 모습이 어렵지 않게 나타난다.

감옥에서, 정약전은 죽은 배교자의 영혼이 천당으로 갔기를 바랐다. 바랐다가보다는 기도했다. 정약전은 어쨌든 땅 위를 떠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중략) **배교하고 죽은 자의 영혼을 천주가 받아주기를 기도할 때, 정약전은 천주의 존재를 믿고 있다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믿었다기보다는 그러기를 바랐다.**(139쪽)

정약전은 개인적 영달이나 구원이 아닌,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민하고 타인에 대해 배려를 실천하는 사회적 영성을 자신의 삶과 행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체 속에서 형성해 나가게 된다.

사회적 영성을 통한 신앙 형성과 공동체적 종교 경험은 배교 이후 정약전의 삶에도 영향을 주었다. 정약전은 배교 이후 흑산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유배를 떠난다.

바다는 이 세상 모든 물의 끝이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는데,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다는 흑산도는 믿기지 않았다.(중략) 저것이 바다로구나, 저 막막한 것이, 저 디딜 수 없는 것이. 마음은 본래 빈 것이어서 외물에 반응해도 아무런 흔적이 없다 하니 바다에도 사람의 마음이 포개지는 것인가.(10~11쪽)

유배를 떠나는 정약전에서 흑산은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막막한 것’, ‘디딜 수 없는 것’과 같이 이전 공동체와 삶이 분리된 낯설고 막연한 곳이었다. 특히 그곳에서 정약전은 섬 마을의 구성원도, 조선의 선비도 아닌 누구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애매한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더욱이 “장팔수를 데려다가 천주교를 가르치려느냐던 오칠구의 조롱이 참수형으로 죽은 동생 정약종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200쪽)와 같은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천주교 신자였다는 사실로 인해 끊임없이 조롱과 존재에 대한 의심받게 된다. 다시 말해, 흑산에서 정약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정을 추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부재한 존재로 나타난다.

하지만 정약전은 추구하던 사회적 영성은 공동체적인 것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유가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흑산에서 자신이 추구하던 사회적 영성에 기반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창대는 정약전이 섬으로 내몰린 영유가 ‘사학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았다.(중략) **서울과 권세를 묻지 않더라도 삶은 가능할 것이었다. 창대의 얼굴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중략) 마주 앉은 창대의 얼굴에서 또 조카사위 황사영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섬에도 황사영이 있었구나.(116~117쪽)

순매는 **흑산에 온 유배 죄인의 핏줄이었다.** 순매의 삼대조 장일청은 경상도 지리산 아래 고을 향청의 수령이었다. 참언서를 늘 끼고 살다가 역모의 언저리에 얽혀 들어서 사형을 겨우 면하고 흑산에 유배되었다.(178쪽)

흑산에서 정약전은 창대와 순매를 만난다. 그는 창대에게서 “그 강물은 황사영의 마음속으로 흘렀다.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 마음으로 세상을 이룰 때 세상은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63쪽)는 표현과 같이 천주교 신앙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던 황사영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리고 유배 죄인의 핏줄인 순매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던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처럼 정약전은 배교 이후 유배지의 삶 속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꿈꾼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더 이상 사회에서 격리된 ‘사학죄인’이 아니었다. 정약전은 흑산에서 발견한 새로운 공동체에서 사회적 영성에 기반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정약전은 창대를 불러 앉히고 그 두려움을 말하려는, 말은 잘 이어지지 않았다. - 나는 흑산을 자산慈山으로 바꾸어 살려 한다. 정약전은 종이에 검을 자慈를 써서 창대에게 보여주었다. 창대가 고개를 들었다. - 같은 뜻인데 - 같지 않다. **자는 흐리고 어둡고 깊다는 뜻이다. 혹은 너무 캄캄하다. 자는 또, 지금, 여기라는 뜻도 있으니 좋지 않으나. 너와 내가 지금 여기에서는 섬이 자산이다.**(중략) - 혹은 무섭다. 흑산은 여기가 유배지라는 걸 끊임없이 깨우친다. **자慈 속에는 희미하지만 빛이 있다. 여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빛이다. 그렇게 느껴진다.**(337~338쪽)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안적 공동체의 인정을 추구할 수 있게 된 정약전에게 흑산은 더 희망이 없는 ‘캄캄한 곳’이 아니었다. 그에게 흑산, 아니 자산은 ‘지금 여기에 희미하지만 불빛이 있는’ 희망의 공간으로 변하게 된다.

정약전은 함께 천주교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신앙적 변화와 행동을 사회의 맥락에서 고민하는 사회적 영성을 통해 신앙을 형성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약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신앙 공동체의 인정을 통해 천주교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배교 이후

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이전 신앙 공동체 속 종교 경험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영성을 바탕으로 흑산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적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 속에서 사회적 영성의 가치에 바탕을 둔 공동체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정체성 형성한다. 이후 그는 박해와 유배로 인한 실존적 불안과 자아의 분열을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IV. 마치며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김훈의 <흑산>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천주교 배교에 관한 재현적 글쓰기에 나타나는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작용 양상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동안 조선후기 천주교 종교 경험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배교는 주로 호교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개인 신앙심의 문제로 환원되어 생각되었다. 하지만 조선후기 천주교 배교에 대한 역사적 기록의 서사가 구성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신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의 ‘조종’을 통한 개인의 변화와 박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 행위에 대한 공동체 ‘인정’의 상호작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호작용 양상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배교에 관한 재현적 글쓰기 중 하나인 김훈의 <흑산>에 나타나는 배교자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흑산>에 등장하는 두 배교자인 박차돌과 정약전은 천주교 신앙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추구하던 영성의 차이를 보인다. 이들이 신앙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영성과 사회적 영성의 차이는 공동체와 소통하는 종교 경험의 형성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배교 이후 다시 삶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공동체의 인정을 추구하고, 이

를 통해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때 박차들은 자기-치유에 대한 집중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적 영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신앙 공동체 속 종교 경험이 부재하게 된다. 따라서 그는 배교 이후 자신의 행위에 대해 기존 사회의 인정을 추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분열되는 자아-정체성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에 반해 자신의 신앙적 변화와 행동을 사회의 맥락에서 고민하던 정약전은 배교 이전 천주교 공동체를 통해 경험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위를 공유하고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를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조선후기 천주교 배교와 이후 삶의 모습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진위 여부를 넘어서, 신앙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 종교를 믿고 삶을 전개하는 양상과 이를 통해 신자로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대한 논의는 배교를 단지 신앙을 버리는 행위로 바라보는 단편적인 이해를 넘어서, 조선후기 박해 속에서 천주교를 믿었던 개인들의 다양한 종교 경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참고문헌

- 고홍식, 「丙寅敎難期 信徒들의 信仰: 《捕盜廳謄錄》을 中心으로」, 『교회사연구』 No.6, 한국교회사연구소, 1988, 277~310쪽.
- 김성민, 「토마스 머튼의 회심체험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 『신학과 실천』 Vol.43, 한국실천신학회, 2015, 293~336쪽.
- _____, 『종교체험』, 동명사, 2001
- 김수태, 「초기 한국 천주교회의 배교문제」, 『東洋學』 Vol. 29, 단국대동양학연구소, 1999, 159~175쪽.
- _____, 「이존창의 신앙과 배교문제」, 『한국천주교회의 역사와 문화』, 한국교회사연구소, 2011, 281~356쪽.
- 김윤정, 「김훈의 역사소설에 나타난 역사 변용의 원리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5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7, 181~203쪽.
- 김재영, 「<종교경험의 다양성>속에 나타나 있는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이론」, 『범한철학』 제9집, 범한철학회, 1994, 143~180쪽.
- 김주언, 「김훈 소설에서 바다의 의미 - 『흑산』을 중심으로」, 『문학과 종교』 제18권 2호, 한국문학과 종교학회, 2013, 43~63쪽.
- _____, 「정약전 삶의 소설 형상화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5, 49~70쪽.
- 김진호 외, 『사회적 영성 - 세월호 이후에도 ‘삶’은 가능한가』, 현암사, 2014.
- 김한규, 「<邪學懲義>를 통해서 본 初期 韓國天主敎會의 몇가지 問題」, 『교회사연구』 No.2,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49~87쪽.
- 김훈, 『흑산』, 학고재, 2011.
- 달레, 샤를르 저, 안홍렬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상, 한국교회사연구소, 1978.
- _____, 『한국천주교회사』 중,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 _____, 『한국천주교회사』 하, 한국교회사연구소, 1981.
- 대중서사학회 편, 『역사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2003.
- 머튼, 토머스 저, 류해욱 역, 『토머스 머튼의 시간』, 바오로딸, 2010.
- _____, 정진석 역, 『칠층산』, 성바오로출판사, 1982.
- 박진아, 「끝없는 불화, 숭고한 언어: 김훈 『흑산』」, 『이화어문논집』 Vol.31, 이화어문학회, 2013, 83~103쪽.
- 심상태, 「순교와 배교의 신학적 의미」, 『한국그리스도사상』 10,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002. 165~188쪽.
- _____, 「이벽의 죽음과 순교문제에 대한 재조명」, 『우리나라 천주교회 창립사』,

- 韓國天主教會創立史研究院, 2007, 130~171쪽.
- 윤인선, 「<자책 스살꾸자>에 나타나는 성찰적 글쓰기와 경계의 에토스」, 『수사학』 Vol.26, 한국수사학회, 2016, 175~196쪽.
- 이근세, 「이념의 문제와 글쓰기 전략 - 김훈의 『흑산』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No.49, 우리어문학회, 2014, 483~511쪽.
- 이효섭, 「병인박해 시기 천주교회 배교자와 회심자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6.
-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5.
- 조광, 『조선후기 천주교회사 연구의 기초』, 경인문화사, 2010.
- 최재학, 「회심과 자기정체성 확립」, 『신학과 실천』 Vol.31, 한국실천신학회, 2012, 283~307쪽.
-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만남과 믿음의 길목에서』, 한국교회사연구소, 1989.
- 호네트, 악셀 저, 문성훈·이현재 역, 『인정투쟁-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사월의책, 2011.
- 황종렬, 「뜻으로 본 성서-배교자의 영성?」, 『갈라진 시대의 기쁜 소식』 No.650, 우리신학연구소, 2004, 6~9쪽.
- Greimas, Algirdas Julien, translation by Paul J. Perron and Frank H. Collins, *On meaning: selected writings in semiotic theory*,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7.
- James, William,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A study in human nature*, Newyork: Modern Library, 1902.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al narrative about the Catholic apostasy in the Late Chosun Dynasty

Yoon, In-sun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s and community in the Late Chosun Dynasty Catholic apostolic narrative and the representational narrative about the life of the apostate.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will discuss the interaction of individuals and community focusing on the apostasy narrative in Charles Dallet's *Histoire de l'Eglise de Corée*. Based on the interaction of individuals and community.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different aspects of life about Jeong, Yak-jeon and Park, Cha-dol described after the apostasy in Kim, Hoon's *Heuksan*. Especially, This article will discuss the different of social spirituality and individual spirituality in the process of faith formation and the process of forming self-identity after apostolic. Beyond understanding apostasy through the outcome of action, the above discussion will enabl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process of forming a self-identity and practicing faith as a Catholic believer in the social community. And also beyond the fragmentary understanding of apostasy as an abandoning faith, it will provide the possibility of broadening the understanding of various religious experiences of individuals as a Catholic believer in the Late Chosun Dynasty.

Keywords : Catholic persecution in the Late Chosun Dynasty, religious experience, apostasy, Charles Dallet's *Histoire de l'Eglise de Corée*, Kim, Hoon's *Heuksan*, social spirituality, individual spirituality, community recognition, self-identity

투고일 : 2018. 02. 28. / 심사일 : 2018. 03. 14. / 심사완료일 : 2018. 03. 19.